

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달러 외평채 성공적 발행

(해당 실: 국제경제관리관, 과: 국제금융과, 담당자: 이태운사무관, 044-215-4712)

I. 추진 배경

- 美 관세 부과, 美中 갈등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외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 확충이 매우 필요했던 상황
 - 또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이를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에 확산시킬 계기가 필요
- ⇒ 외환보유액 확충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주요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평채 발행 추진

II. 정책 내용

- 금년초 美 상호관세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추경을 통해 외평채 연간 발행한도를 증액
 - 국회에서도 추가로 외평채를 발행할 필요성을 감안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증액하기로 의결(5월, 본예산 12억불→추경 35억불)
- 대통령 참석 '대한민국 투자 서밋'(9월 뉴욕) 및 런던 로드쇼, 동경 로드쇼 등 주요 금융중심지에서의 한국경제 설명회(IR)와 글로벌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전세계 각지의 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 및 외평채 홍보
- 적극적인 IR 활동 등으로 외평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발행 물량 이상으로 투자자 주문을 확보하였고, 이를 바탕으로 발행금리를 당초 목표 대비 2차레에 걸쳐 큰 폭 낮추는 데에 성공
 - * 달러(주문배수: 10억불 대비 6배) : 최초 +22bp → 중간 +19bp → 최종 +17bp <5년물>
 - 유로(14억유로 대비 13.6배) : 최초 +40bp → 중간 +33bp → 최종 +25bp <3년물 기준>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역대 최저 가산금리(美 국채 대비 +17bp), 역대 최대 주문배수(유로 외평채 13.6배), 세계 3대 통화 발행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실하게 부각
 - * (가산금리) 통상 美 국채 대비 +20~30bp대 가산금리(기존 최저는 '24년도 +24bp) → 금번 美 국채 대비 +17bp (주문배수) 통상 발행 규모 대비 5배 내외의 주문이 접수 → 금번 유로화 발행시 13.6배 주문배수 달성
 - ** 우리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일본 정책금융기관, 뉴질랜드 정책금융기관, 홍콩 정부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
- '98년 이후 최대인 34억불 규모(10억달러+14억유로+1,100억엔) 외평채 발행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 대비하여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
 - * 외평채 발행실적 추이(억불) : ('98)40 ... ('20)15 ('21)13 ('22) - ('23)5 ('24)13 ('25)34
- 외평채 가산금리를 낮게 형성해 놓음으로써 정부 외평채 금리를 준거점(벤치마크)으로 삼는 국내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에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
 - * 외평채 발행 이후, 해양진흥공사는 대만내 달러채권(포모사본드) 발행에서 역대 최저금리 경신 수출입은행은 유로 채권에서 직전 발행에 비해 가산금리를 낮추는 성과(6월 +47bp → 11월 +34bp)